

## 극우 파시즘의 유령이 한국 개신교회를 배회하고 있다

박종균 (부산장신대학교, 교수)

- I. 서론
- II. 기독교의 파시즘
- III. 종교개혁운동의 파시즘
- IV. 미국 근본주의 개신교와 한국 파시즘 기독교
- V. 결론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2.03>

---

• ABSTRACT •

---

## The Specter of Far-Right Fascism Haunts Korean Protestant Churches

Prof., Park, Jong-Kyunn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This study argues that the fanatical Protestant fascism displayed in the recent “December 3rd the President’s coup” was by no means an accidental event, but rather based on solid historical origins and grounding. Christian fascism combines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shared by fascist movements with Christian fundamentalism and the sacralization of capitalism. Fascism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hich rely heavily on Christian fundamentalism as a foundation of support, not only shares the Christian fundamentalist belief that norms, feasible only in a theocratic state, should be applied to all areas of human life, but also adheres to an irrational and anti-intellectual attitude bordering on delusion that these rules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public sphere. This paper examines the genealogy of religious fascism, tracing its roots from the current far-right fascist Protestantism in Korea, starting with its fundamental affinity with the dictatorial fascist regimes that protected Protestantism, going back further to the anti-intellectualism of American evangelicalism and fundamentalism, the mother of Korean Protestantism, going back even further to the religious reform movement that gave birth to Protestantism, and even more fundamentally, to the point when Christianity became the Christianity of the Roman Empire.

**Key words:** christian fascism, christian fundamentalism, evangelism, anti-intellectualism, democracy, fake-news, disinformation

---

## I. 서론

팩스톤(Robert Paxton)의 견해에 기초해 모호하고 다양한 파시즘 논의를 종합하여 파시즘을 개략적으로나마 정리해 본다면, 우선 파시즘은 ‘부정’의 사고, 행동 체계이다. 다른 것들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자신의 존재의의를 입증하려 했기 때문이다. 파시즘은 어떤 타자들 때문에 국가가 쇠퇴하고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고 전제한다. 이렇게 보면 파시즘은 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희생양 만들기’ 사상이다. 파시즘은 적들을 만들어 놓고 대중의 공포를 조장한다. 사회 질서의 파탄에 따른 대중의 불안과 증오를 선동하고 이들의 공포에 편승한다. 거기에 좌파의 위협과 헌정 질서의 불안정, 그리고 파시스트 행동대원들이 길거리에서 자가 발전한 테러의 공포를 확산하면서 대중의 마음속에서 의지할 것은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력밖에 없다는 ‘대안 부재론’을 유포시킴으로써 대중들을 독재적 지도자에 더욱 예측적하게 만드는 것이다. 파시즘은 일반적으로 극우와 전술적 동맹을 맺으며 극우파를 권력 쟁취의 숙주로 이용한 역사를 갖기에 지금껏 파시즘은 병적인 우파 사상으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이다.<sup>1)</sup>

이탈리아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를 고전적 파시즘이라고 한다면, 2차대전 이후의 새로운 파시즘은 그 양상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다. 파시즘은 케빈 패스모어(Kevin Passmore)의 “후기-파시즘(post-fascism)”, 버트럼 그로스(Bertram Gross)의 “유순한 파시즘(Friendly Fascism)”, 윌린(Sheldon Wolin)의 “전도된 전체주의(inverted totalitarianism)”라는 다양한 모습의 얼굴을 갖는다.<sup>2)</sup> 하지만 내용적 측면

1) Robert Paxton, *The Anatomy of Fascism*, 손명희/최희영 역, 『파시즘: 열정과 광기의 정치 혁명』 (서울: 교양인, 2005), 488-490.

2) 박성철,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145.

에서 다양한 파시즘 용어가 서로 다른 정치 운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민주주의가 진보한 사회에서 등장했던 파시스트 운동을 서로 다른 강조점을 두고 표현한 것이라 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쉴레(Dorothee Sölle)가 주장한 “기독교 파시즘(Christofaschismus)”, 즉 파시스트 운동이 공유하는 정치적 특성과 기독교 근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신성화의 결합한 것으로 정의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기독교 근본주의를 중요한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의 파시즘은 기독교 근본주의가 신정일치 국가에서나 실현 가능한 규범들을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신념 체계를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규율을 공적 영역에서도 실현해야 한다는 망상에 가까운 비합리적이고 반지성주의적 태도를 고수한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민주적 다양성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극우적인 이념적 가치를 신봉하며 최종적이며 규범적으로 절대적인 선이자 진리인 자신들의 편에 서지 않는 모든 집단이나 개인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다. 말하자면, 기독교 근본주의의 특징들은 파시즘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인식론적 친화성이 바탕이 이미 마련된 셈이다.<sup>3)</sup> 전광훈의 광화문 집회나 손현보의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등장한 연사들은 하나 같이 계엄을 계몽이라 칭송하고, 내란수괴를 지키자며 헌법재판소 파괴를 외쳤고, ‘공산당’, ‘중북좌파’, ‘민주당 간첩’, ‘빨갱이 노조’를 죽이자, 처단하자 절규한다. 다른 한편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감정은 반국가 세력들에게 침탈당하는 현실에 대한 공포, 그렇기에 더욱 진실된 애국심과 자부심, 감격, 헌신이다. 이처럼 광기 어린 지도자들과 사유하지 않는 대중이 만나 일어나는 거대한 폭력, 별 생각 없는 평범한 대중들이 인간에 대한 집단적 악행에 기꺼이 동참하

3) Dorothee Sölle, “Christofaschismus,” in *Das Fenster der Verwundbarkeit* (Stuttgart: Kreuz Verlag, 1987), 158, 박성철,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 155-156에서 재인용.

게 되는 사태, 그것이 바로 종교 파시즘이다.

작금 극우 정치권력과 결탁한 개신교 아스팔트 파시스트들의 난동을 보노라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규정한 민주주의 붕괴 과정을 보는 듯하다. 지지들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붕괴는 다음 아인 투표장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극단적 지도자와 그의 호소에 호응하는 대중들에 의해 민주주의는 붕괴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상황에서도 소름 돋는 분석이다. 민주주의는 “1) 헌법을 부정하거나 위반, 선거제도의 철폐, 정부 기관 폐쇄, 기본적인 시민권 및 정치 권리를 제한, 권력을 잡기 위해 군사 쿠데타나 폭동 등 헌법을 훼손하는 방법의 시도,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선거제도의 정당성 부정. 2) 정치 경쟁자를 전복 세력이나 헌법 질서의 파괴자라고 비난하거나 정치 경쟁자가 국가 안보나 국민의 삶에 위협을 주고 있는 반국가세력이라 주장하거나 상대 정당을 근거 없이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우면서, 법률 위반(혹은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그들을 정치 무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공격. 정치 경쟁자가 외국 정부(일반적으로 적국)와 손잡고(혹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은밀히 활동하는 스파이라고 근거도 없이 주장, 3) 개인적으로 혹은 정당을 통해 정적에 대한 폭력 행사를 지원하거나 선동. 폭력에 대한 비난이나 처벌을 부인함으로써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에 암묵적으로 동조. 4)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에 의해 붕괴된다는 것이다.<sup>4)</sup>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렇게도 허망하게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경악하게 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파시즘 개신교를 과연 정상 범주를 벗어난 일부 소수의 개신교 신자들이

4) Steven Levitsky and Daniel Ziblatt, *How Democracies Die*, 박세연 역,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서울: 어크로스, 2018), 30-32 참조.

라 치부할 수 있을까? 논자 바로 이런 광신적 개신교 파시즘이 결코 우발적 사태가 아니라 탄탄한 역사적 기원과 근거를 바탕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글은 사회과학적인 글이 아니기에 학문적 엄밀성 갖추지 못했다. 평생 개신교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살았던 한 사람의 교회인으로서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느낀 에토스를 토대로 한 것이기에 객관적인 타당성을 담보한다 자신할 수 없다.

이 글은 극우 파시즘 개신교의 뿌리를 가까이는 개신교를 비호해주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과의 친화성을 보인 근본적 성향에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개신교의 모태인 미국 복음주의와 근본주의의 반지성주의와 절대적 선악 이원론의 문제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개신교를 탄생시킨 종교개혁운동에서, 아니 더욱 원천적으로는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기독교가 된 그 시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종교적 파시즘의 계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도화된 교회의 기독교와 콘스탄틴의 기독교의 파시즘,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나타난 파시즘,<sup>5)</sup> 한국 개신교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미국 개신교에 나타난 파시즘, 그리고 일제 강점기, 해방 전후와 전후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과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개신교 파시즘 현상을 논의하고 난 이후 종교적으로 일상화된 파시즘을 극복하는 (혹은 전혀 아닐 수도 있는) 방안을 거칠게나마 생각해보겠다.

## II. 기독교의 파시즘

유대-기독교는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단절적으로 보는 인식이 전

5) 여기서 종교개혁사상 전체를 다룰 수는 없기에, 루터의 종교개혁만 국한시켜 논의할 것이며, 이 논의는 다음의 연구에서 상론되었다. 참고 “루터 종교개혁과 근본주의의 ‘선택적 친화성’에 관한 연구,” 『신학과 선교』 56(2019): 143-180.

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두 세계는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발상에서는 상호 소통의 문제가 절박한 신앙적 언어로 자리 잡게 된다. 성서는 무한한 질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의 삶이나 역사에 개입하는 예언자들을 중계자로 묘사하고 있다. 바로 그리스도는 그러한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리 인류 구원에서 유일회적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라 칭한다. 예수는 기독교적으로는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신으로 신앙되는 존재다. 그리고 요한의 기독교론에서 볼 수 있듯, 신이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로 성육신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도그마로 자리잡게 된다. 기독교 교회는 이러한 도그마를 믿는 것이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이 인간이 된 것의 신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 기독교론의 메시지는 “신의 자기 비하”, “신의 자기 부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성육신한 신이 전지 전능자의 모습이 아니라 비천한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에 기독교 진리의 전복성과 반전의 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된 예수의 이야기는 신이 자신을 비천하게 비하하고 부정함으로써, 신과 인간의 소통을 가능케 했다는 데 있다.

바로 여기서 신과 인간을 중계하면서 구원을 독점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허망한 짓인지 대변에 파악할 수 있다.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은 인간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초기 원시적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에 대한 신앙에서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혹독한 박해를 당하는 한계상황에서도 그들이 유지해야하는 신앙과 가치는 형제애와 타자에 대한 헌신적 사랑이 최우선적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적어도 그들의 신앙에서 그들과 견해가 다른 자들에 대한 배타와 폭력이 자리할 곳은 없었

다.

하지만 교회가 제도화되자마자 곧바로 교회가 신앙의 도그마를 독점하면서 구원에 관한 담론은 제도 교회권력이 허용하는 범위에 국한 되었다. 힘있는 누군가의 견해만이 진리이고 다른 견해는 비진리이자 이단이라는 사고는 구원을 독점하겠다는 파시스트적 욕망에 다름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유일무이한 존재 양식을 결정하는 곳을 자임했으며, 그런 담론이 기독교 사상의 보편적이고 절대적 가치임을 주장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의 가르침과는 달리 철저히 배타주의적인 패권주의를 지향했던 것이다. 김진호는 교회의 성서 정경성(canoncity) 주장에서 바로 파시즘의 전형을 찾는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종교 경전의 “정경성” 문제는 “계시, 아니 신-인 대면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억제하면서까지 진리에의 접근로를 일원화하고자 했던 교회의 신경질적 독점욕구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sup>6)</sup> 이것은 이단을 분별해 내기 위한 장치로서 고안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단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장치였다고 하는 편이 더 적합한 것이며, 복잡하고 어려운 신앙적 이견들을 손쉽게 정리하기 위해. 그래서 단순 명료한 교의적 집단을 만들으로써 유일신과의 보다 용이한 대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교회는 제물로 바칠 희생양이 요구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이단이었던 것이다.<sup>7)</sup> 원천적으로 기독교 교회가 파시즘과의 친화성을 갖는다는 진단일 것이다. 즉 죄인(이단)을 생산하고 배제해야만 하는 권력 욕구가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했다면, 오늘날의 파시즘의 행태와 전혀 다르다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메노파 신학자 요더(John Yoder)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의 기독교, 즉 우리의 기독교는 가톨릭교회이든 프로테스탄트교회이든 진정

6) 김진호, “한국교회의 승리주의,” 『우리 안의 파시즘』 (서울: 삼인, 2006), 204.

7) 위의 글, 205.

한 의미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대신 로마제국의 논리를 추종했다 할 수 있다. 기독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삶과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분이 삶의 모델이 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강조해야 한다. 요더가 주장하는 예수의 윤리의 핵심은 “예수 정치학”이다. 그리고 예수 정치학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다. 이 십자가가 한편으로 예수가 정치적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정치적 실천의 규범이 된다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단지 속죄의 수단으로 제의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반란과 정적주의 양자에 대한 정치적 대안으로 드러난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예수의 죽음은 영혼 구원만을 위한 것인 양 교리화 시켜온 복음주의의 도그마와 달리 예수의 삶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는 영혼이 내면에서 죄와 씨름하는 차원의 사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래할 질서 즉 새로운 질서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 당당하게 드러내는 사회적 실재이다.”<sup>8)</sup>

그러나 콘스탄틴화 된 기독교는 신약성서를 통하여 주어진 그리스도의 모델을 무시하거나,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려고 했던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윤리적 모델을 버리고 로마제국의 힘의 논리와 타협하는 신앙과 윤리에 천착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는 신앙과 윤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콘스탄틴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 요더의 비판이다. 말하자면, 콘스탄틴적 기독교란 교회와 세상의 권력을 동일시하는 체계다.<sup>9)</sup> 즉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의 삶에 순종하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콘스탄틴적 체제 즉 강제와 권력에 의한 지배집단이 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는 세속적인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권력이 아니라 신의 뜻을 구현하는 신의 대리자라고 종교적으

8) John Yoder, *The Politics of Jesus* (Grand Rapids: Eerdmans, 1994), 96.

9) John Yoder, *The Royal Priesthood: Essays Ecclesiological and Ecumenical* (Scottsdale: Herald Press, 1998), 154.

로 인정해준 것을 의미한다. 콘스탄틴적 기독교가 교회사적으로는 기독교에 의한 로마제국의 지배 또는 세속적 국가를 교회의 복음적 권위 아래 굴복시킨 것으로 해석되지만, 요더에 따르면 교회와 세속 권력의 동일시, 권력에 의한 교회의 왜곡, 예수의 교회에서 제국적 교회로의 변질을 의미한다. 콘스탄틴 기독교는 자기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로마 제국적 무력을 지향하는 기독교다. 그래서 요더는 콘스탄틴의 승리는 교회가 로마제국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로마제국이 기독교 교회에 대한 승리라 주장한다.<sup>10)</sup>

기독교 교회는 이에 대한 성찰 없이 교회의 콘스탄틴화를 교회의 승리가 교회의 선교적 기회로 착각하면서 로마제국의 평화를 전 세계의 복음화와 동일시했던 것이다. 이러한 콘스탄틴의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 대항해 시대, 제국주의 시대에 얼마나 반인륜적 만행을 저질렀는지는 세계 역사가 증명해준다. 대외적으로뿐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도 콘스탄틴의 기독교는 기독교 세계 내의 다른 의견들에 대해 반박과 토론이 아닌 무력으로 누르고 탄압하고 혹독한 심문과 학살을 자행했던 만행은 20세기 최악의 전체주의 파시즘의 만행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 III. 종교개혁운동의 파시즘

루터의 개인적 성서읽기의 비전이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실현되었을 때, 가톨릭교회를 통해서만 담보될 수 있었던 신앙의 통일성은 해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루터에게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신이며, 그것은 성서를 읽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권위가 되었다. 이는 신이 성서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했으며 개인은 타율적 권위의 도움이 없이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신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10) Yoder, *The Royal Priesthood*, 181.

확고한 신앙에 바탕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의미에서 보면, 모든 개인들이 무오류의 성서에 접근할 수 있게 해놓고, 정작 소통될 수 있는 진리는 오직 하나라는 루터의 주장은 배타적 근본주의에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 셈이다. 루터에게 성서는 단순 명료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에, 일단 모든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성서를 경험할 기회를 얻고 난 이후 자신을 위한 유일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이로써 성서 본문을 성령의 무오류적인 안내로 간주하는 근본주의적 이념은 상당한 개연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 근본주의 신학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하나의 신학운동으로 등장하게 되지만,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흑백논리의 근본주의적 단초는 이미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그 뿌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선적으로 루터는 성서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루터는 성서는 “단 하나의 의미 ... 문자적 의미”만 갖는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sup>11)</sup> 이것은 가톨릭교회의 성서해석의 독점권을 폐기시키려던 자신의 의도를 뒷받침 하는 강력한 토대 중의 하나였다. 또한 루터의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근본주의의 성향은 자신의 신학적 노선을 따르던 추종자들과 신학적이거나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드러났을 때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세웠던 점에서도 드러난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동료이자 종교개혁의 동지였던 칼슈타트가 비텐베르크에서 거행하던 빵과 포도주의 성찬, 독일어예배를 1523년 루터는 그곳으로 복귀하자마자 즉시 중단시켜버리고 전례에서 라틴어, 성찬에서는 종교개혁 이전처럼 평신도들에게는 포도주를 제외하고 오직 빵만 나누어주게 했다. 칼슈타트는 루터의 이런 조치를 종교개혁을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11) Martin Luther, “Heidelberg Disputation,” *Martin Luther’s Basic Theological Writings*, trans. and ed. Timothy F. Lull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ress, 1989), 78.

제국의 명령과 타협을 은폐한 것이라 비판했으며, 루터에 의해 중단되었던 개혁을 이후 오를라문데에서 이어나갔다. 빵과 포도주로 성찬을 거행했고, 독일어로 시편을 노래했으며, 아이콘을 제거하였고 모든 신자가 사제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칼슈타트는 자신이 섬기는 모든 교구민들에게 성서가 그들 자신을 해석하게 하라고 권면했다. 시민공동체가 주도하는 종교개혁에 헌신했던 칼슈타트는 성체 거양, 사제가 제병할 때 평신도의 입에 빵을 넣어주는 것조차도 권위주의적이라 간주하고 거부했다.<sup>1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슈타트와 루터의 신학은 차이보다는 유사점이 훨씬 크다 할 수 있는데, 결국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는 최대 원인은 종교개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다. 비텐베르크 종교개혁의 경험은 칼슈타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개혁노선은 비텐베르크를 떠나 독일의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종교개혁이 도덕 갱신, 빈민구제 개편, 평신도 대중의 참여를 동반한 사회개혁과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칼슈타트의 종교개혁은 탐다운 방식을 선택했던 루터의 이상과는 다른 노선이었다 말할 수 있겠다. 분명한 것은 칼슈타트가 죽은 이후 비텐베르크의 종교개혁은 더 이상 민중이 주도하는 시민운동이 아니라 선제후가 주도하는 종교개혁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루터는 죽을 때까지 칼슈타트를 토마스 뮌처와 마찬가지로 “광신주의자”, “마귀에 사로잡힌 자”라는 비난을 고수했다.<sup>13)</sup>

논자가 주목하는 것은 모든 사태의 최종 판단과 결정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루터의 손에 달려있었다는 대목이다. 이점에 대해 린들 로퍼(Lyndal Rop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비텐베르크 종교개혁

12) Lyndal Roper, *Martin Luther: Renegade and Prophet*, 박규태 역, 『마르틴 루터-인간, 예언자, 변절자』 (서울: 복있는 사람, 2019), 366-367 참조.

13) Roper, *Martin Luther*, 391-398 참조.

운동이 가져온 꿈같은 흥분, 미사와 수도원에 의존하지 않는 기금으로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의식, 수많은 시민이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받았을 때 느꼈던 복음의 능력. 이 모든 것은 루터가 집단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주도권만을 강조하면서 사라지고 말았다.”<sup>14)</sup> 루터는 공권력을 이용해 칼슈타트가 출판하고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음은 물론, 『하늘의 예언자들 반박(Wider die himmlischen Propheten)』에서 칼슈타트가 “시기와 헛된 야심”, “질투 섞인 증오”를 품고 있으며, 이성 즉 “마귀의 음녀”에 복종하는 인간이라 저주를 퍼붓고 있다.<sup>15)</sup>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견해에 대해 이러한 저주를 퍼부를 권한을 과연 신이 루터에 직접 계시했는지에 대한 물음은 아무도 제기할 수 없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철저한 개인적 카리스마에 의존한 전형적인 파시즘적 행태라 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종교개혁 운동이 전개되는 와중에 발생한 독일농민전쟁에서 보여준 루터의 태도는 칼슈타트와의 관계에서 보여주었던 태도보다 더 자기모순적이었다. 영주들과 지주들의 착취에 기본적인 생존조차 유지하기 힘들었던 슈바벤 농민들의 12개조항(Zwölf Artikel der Bauernschaft)은 철저하게 루터의 사상에 기초한 것이었다.

지주가 우리를 그들의 농노처럼 대우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습이었으나, 이런 관습은 측은하기만 하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자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이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성서는 우리가 자유인이요 자유를 원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준다.<sup>16)</sup>

14) Roper, *Martin Luther*, 367-368.

15) M. Luther, *Luther's Works*, vol. 40(CHurch and Ministry II), ed. Conrad Bergendoff et al trans. Helmut Lehmann (Minneapolis: Fortress, 1958), 204.

16) Bob Scribner & Gerhard Benecke(ed.), *The German Peasant War of 1525: New*

과연 이것을 루터의 사상에 대한 왜곡이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루터는 오직 영적 자유만을 주장했는데, 탐욕스런 농민들이 세속적 욕심을 영적인 것과 혼합시켜버린 것이라 보기 어렵다. 루터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인다 치더라도 본인이 직접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장했고, 당시 세속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로마가톨릭교회와 그 우두머리에 저항했던 행위, 제국회의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주장함으로써 저항의 본보기를 제시한 행위는 오직 영적 의미만 있다고 변명되기 어렵다. 노예나 다름없이 억압받는 농민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냥 노예 상태에 만족하면서 영적으로만 구원받은 자유라는 강변은 궤변일 뿐이다. 루터의 언설과 행위 그 자체가 종교적이고 정치적으로 민중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들의 지지가 종교개혁의 성공에 밑거름이 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루터의 신념을 신봉하던 농민들이 영적인 자유에 만족하지 않고 삶의 자유, 사회적인 자유를 강력하게 요구하던 그 시점, 루터는 자신의 신앙적이고 정치적 이념을 절대시하며 복음의 이름으로 적대자들에 대한 공격과 학살을 정당화시켰다.<sup>17)</sup> 뿐만 아니라 농민봉기가 영주들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종결되자 곧바로 온건한 종교개혁자 에라스무스를 향해서도 농민들에 보였던 바로 그 적개심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신의 명령으로 요구한다. 너희는 에라스무스의 적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의 책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도중에 죽고 파멸당하더라도 나는 그를 공격하는 글을 쓸 것이다. 나는 펜으로 그 사탄을 죽일 것이다 ... 내가 뮌처를 추종하는 놈들을 죽였을 때처럼, 그의 피가 내

*Viewpoints* (Boston: Unwin Hyman, 1979), 254.

17) 독일농민전쟁에서 취한 루터의 신학의 정치사상적 함의는 다음의 줄고를 참고하라. “루터와 뮌처의 종말론 비교연구-정치사상의 관점에서,” 『신학연구』 73(2018), 341-368.

목까지 차오를 것이다.<sup>18)</sup>

루터의 독단적 행태에 대해 하나만 더 지적해보자. 불행한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에 대한 루터의 견해에 대해서이다. 성만찬 신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성찬에 임재한다는 루터의 견해와 달리 츠빙글리는 “이것은 내 몸이다”는 말씀에서 “이다”의 의미를 “상징하다” 또는 “의미하다”로 해석했다. 루터는 상징설을 주장하는 츠빙글리와 추종자들에게 “그들은 곧 멸망하리라”고 선언했고, 당국의 검열도 루터 편을 들어 루터의 노선에서 벗어나는 글들은 출판될 수 없었다. 뉘른베르크와 바젤에서는 칼슈타트의 성찬론 관련 출판이 금지되었고, 뉘른베르크에서는 츠빙글리의 저술들이 출판금지를 당했다. 그리고 가톨릭을 신봉하는 칸톤 동맹군이 개신교 진영 취리히를 공격했을 때, 츠빙글리는 취리히 시민으로서 취리히 시민들과 함께 싸워서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대로 전투에 나섰다. 전사하고 말았다. 동맹군들은 츠빙글리의 시신을 넷으로 쪼개서 화형시키고 그 재를 인분과 뒤섞어버렸다. 위대한 종교개혁가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 루터는 애도는커녕 매우 기뻐하며 조롱으로 답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성찬을 모독하여 얻고자 했던 명예의 결과다 ... 신께서 이런 과격한 신성모독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내가 바로 예언자였다.”<sup>19)</sup> 루터는 의견과 해석의 차이를 자신의 복음의 원수요 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극단적 신앙, 종교적 파시즘, 불관용의 정신은 인간 공동체를 적과 동

18) Stefan Zweig, *Triumph und Tragik des Erasmus von Rotterdam* (Frankfurt: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81), 180, 이것은 루터가 농민전쟁의 와중에 고백했던 비정한 언사와 매우 흡사하다. “나, 마르틴 루터는 반란에 참여한 모든 농민을 때려죽였다. 말하자면 내가 그들을 때려죽였으므로, 그들 모두의 피가 내 목까지 차올라 있다(all ihr Blut ist auf meinem Hals).” Ibid., 179.

19) Lyndal Roper, *Martin Luther: Renegade and Prophet*, 526-527.

지로, 참된 신앙인과 거짓된 이단으로 양분시키고, 단지 자기의 신념과 신앙 그리고 자기의 체제의 진실만을 인정하기에 다른 의견에 대해 폭력적인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생각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 억압,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종교재판과 유일한 이념에 사로잡힌 근본주의 신앙의 전형적인 광신적 행태라 할 수 있다.

#### IV. 미국 근본주의 개신교와 한국 파시즘 기독교

미국 역사학자 호프스태터(Richard Hofstadter)는 1950년대에 느닷없이 등장해 지식인 사회를 초토화시킨 매카시즘 광풍의 역사적 연원을 추적하고 이론적으로 해명하면서, 당시 미국 대중들을 사로잡은 정서를 “반지성주의”라는 개념으로 포착했으며, 그것의 뿌리를 미국 복음주의 부흥운동과 기독교 근본주의에서 찾았다. 그런데 그의 통찰은 한국의 개신교 파시즘을 이해하는 데 많은 교훈을 준다. 18세기에 들어서 미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유럽의 근대적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이 미국 지성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 그것에 대한 종교적 반동으로 복음주의의 신앙 부흥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호프스태터는 미국 종교사에 나타난 ‘반지성주의’의 중요한 사례로 가장 먼저 열광주의적 부흥운동을 언급한다. 기성 종교의 교단을 위협하며 미국 사회를 파고들었던 부흥운동은 “영혼 구원과 신학적 성서연구의 무관함”을 강조하면서 “이성이나 학습의 역할을 심각하게 위축시킨” 온갖 괴팍스럽고 기이한 행태로 대중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당대의 스타급 부흥사들의 설교와 그들의 기괴한 행태를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다.<sup>20)</sup>

이런 복음주의의 반지성주의는 20세기 들어서도 면면히 이어졌는데,

20) Richard Hofstadter, *Anti-intellectualism in American Life*, 유강은 역, 『미국의 반지성주의』 (서울: 교유서가, 2017), 89-202 참고.

소위 근본주의신학과 신앙의 부상이다. 1925년의 스코프스 재판 등 과학(진화론)과 복음주의(창조론)이 맞붙은 소동은 이러한 현상의 일면을 보여준다. 반지성주의는 근본주의 신학과 신앙의 형태로 미국인의 삶에 저류처럼 계속 이어졌다는 것인데, 이러한 종교적 반지성주의와 병행하여 전후 냉전 시기에 매카시즘의 반공주의의 모습으로 다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호프스테터는 반지성주의는 정치적으로 “편집증적 스타일”의 특색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즉 자신을 적(敵)의 엄청난 악마적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아웃사이드이자 박해받는 선지자로 설정하면서 선한 자신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는 집착적인 과대망상증적 환상이 자리잡고 있었고 그래서 더 거침없이 비정상적인 행위를 실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지성주의의 열광주의와 근본주의 신앙의 세속적 버전이라 할 정치적 편집증적인 스타일은 “가열된 과장과 의심, 그리고 음모론적인 판타지의 인식과 감정”<sup>21)</sup>으로 정의된다. 이 감정에 ‘감염’된 사람들은 ‘종말론적’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중재와 타협’은 없으며, 승리나 패배만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는다. 절대적으로 선한 ‘우리’는 절대적 악의 현신인 ‘그들’과 비타협적으로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 편집증적인 스타일은 심각한 불신과 의심, 음모론적인 판타지, 그리고 종말론적 해결 방식으로 얼룩진 세계관인 것이다.<sup>22)</sup>

반지성주의적 미국 복음주의 부흥운동과 근본주의 신학의 거의 일방적 세례를 받은 한국 개신교는 자연스레 극우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독교 신앙으로 철저화시킨 파시즘적 종교로 형성될 바탕을 마련한다. 해방 및 분단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반공주의라는 ‘체제 정당화 논리’는 한국사회 구성원 가운데 소위 ‘타도하거나 제거해야 할 적대적

21) Richard Hofstadter, *The paranoid style in American politics and other essays* (New York: Alfred A Knopf, 1965), 29.

22) Hofstadter, *The paranoid style*, 4.

대상을 규정하고 구성해내면서, 동시에 ‘민족적·국민적·사회적 통합’의 대상에서 그들을 제외·배제시키고 폭력을 가해왔다. ‘반공주의의 종교화’, ‘반공주의 종교’라 불릴 정도로 개신교 교회가 ‘전투적이고 행동주의적인 반공주의’, 공산주의와 성전을 치르는 ‘반공투사’로, 남한 사회를 대표하는 ‘반공의 상징이자 보루’<sup>23)</sup>가 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반공주의에 내재된 비인간성이나 폭력성을 간과했으며, 기독교적 진리를 반공주의와 동일시하여 이승만 독재와 그 이후 군사독재 권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치 세력이자 권력의 경호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런 허위의식에 맹종한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요청되고 있지만, 한국 개신교는 여전히 정치적 보수세력, 사실상 극우 반공주의 세력과 크게 변별되지 않은 채 극우 파시즘의 이념 고수를 애국주의 나아가 심지어 기독교 복음 수호와 동일시하고 있는 이번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서도 묵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개신교의 반공 파시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연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반공주의는 일제강점기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제국주의의 정치적 기반인 천황제는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는 반역사상으로 간주했으며, 그것이 치안유지법에 집약되어 있다.<sup>24)</sup> 따라서 일제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는 일본인이나 조선인

23) 강인철, “해방 이후 4·19가지의 한국교회와 과거 청산 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24(2006), 78.

24) 1925년 2월 19일 중의원 위원회에 제출된 治安維持法 제1조에는 “국체(천황통치체제) 혹은 정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함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주로 무정부주의자와 공산주의자를 붙은시하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은 1928년 개정되면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되었으며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1년에는 더 많은 조항과 처벌 조항이 훨씬 더 강화되었으며, “예방구금제도”까지 도입되었다. Richard Mitchell, *Thought Control in Prewar Japan*, 김윤식 역, 『日帝의 思想統制』(서울: 一志社, 1982), “2장 치안유지법”과 “3장 치안유지법의 적용” 참고.

은 공산주의자 혐의를 받았다. 비록 한국 개신교가 충실히 일제의 노선에 따라 “사회신조”<sup>25)</sup>, 그리고 “신사참배”의 수순을 밟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제에 저항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민족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기에 오히려 좌우합작이 시도된 바 있었으며, 사실상 식민지하에서 반공주의가 부상되기는 되기는 어려웠다.

한국 개신교의 파시즘은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반공주의화 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한국의 반공주의는 실제적으로 남한 국내 정치와 미군정의 역할, 미국 내에서 메카시즘 반공주의의 등장, 1946년 이후 미국과 소련의 갈등 심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형성되었다하겠다. 남한 내 반공주의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조선 지배에 부역했던 조선 엘리트에 의해 주도되었다 할 수 있다. 한반도를 점령한 미군정은 남한 내에서 일본의 조선 지배에 협력한 집단과 엘리트들을 심판하지 않았다. 미군정은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했던 조선인들을 미군정의 행정요원으로 고용했던 것이다(맥아더 포고령 제1호 제2조). 공산주의 세력이 이들 반민족 부역자들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었던 바, 자신들을 매국노라 공격한 공산주의자들과 결사 항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26)</sup> 특히 일제하에서 식민지 파시즘 통치에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처벌 여론을 잠재우고<sup>27)</sup> 좌파들의 공격에서 자신의 기득권과 입지를 보호해주는

25) 1932년 9월 예수교연합공의회 제9회 총회에서 발표된 12개조의 ‘사회신조’에는 “일제의 유물교육 유물사상 계급적 투쟁 혁명수단에 의한 사회개조와 반동적 탄압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서문에 적시하여 일제강점기 한국 개신교는 반공주의를 사회적 가르침으로 천명했다. 정병준, 『한국교회 역사 속 에큐메니컬 운동』 (서울: 오이쿠메네, 2024), 54.

26) 장병혜, 『상록의 자유혼』 (서울: 현대인쇄문화사, 1973), 78.

27) 이승만은 반민특위가 악질 친일 경찰 하판락, 노덕술 등을 수감하자 이승만은 특위의 조사관과 그 지휘자를 의법 처리함으로써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고, ‘국회 프락치 사건’을 조작하여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던 소장파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사실상 반민특위를

이승만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했으며, (반공/빨갱이)프레임 전환을 통해 공산주의를 히스테리적으로 적대시하게 된 것이다.

한국전쟁은 개신교가 반공투쟁의 최고의 보루임을 한국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반공주의가 전체 사회구성원들에게 내면화되고 가장 강력하고 신성한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게 된다. 말하자면, 반공주의 자체가 국가나 민족을 신성화하는 ‘신성한 담론과 실천의 체계’가 형성됨과 더불어 개신교 역시 반공주의가 신앙화되었다. 교의적으로는 사탄론과 종말론 그리고 구원론이 결합됨으로써, 근본주의 신학의 한 축인 세대주의의 전(前)천년설 신봉자들은 공산주의를 말세의 징조나 사탄으로 확신하게 되었다.<sup>28)</sup> 그러자 반공주의는 선민의식과 구원론과 결부되어, 공산주의와의 전쟁은 신이 한민족을 선택해서 특별한 사명(전 세계 민주국가 진영을 대표해서 공산세력을 전멸시킬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신 계기이자 징표로 해석되었다.<sup>29)</sup> 이렇게 되면 극우 반공주의 이념은 구원론으로 승화된 셈이다. 심지어 폭력적·전투적 반공주의가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라는 인권적 가치, 정치적 민주주의와도 동일시될 수 있게 되었다.<sup>30)</sup>

과시즘 개신교의 배경에는 호프스태터가 미국의 반지성주의를 논하면서 비판했던 바로 냉전시대 매카시즘 광기와 결합된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가 미국 근본주의에 바탕하고 있는 한국 개신교에 가세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무오류의 전통적 근본적 신앙관 또는 교의로 확정시키는

해체시켰다. 노영기,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 대학원 미간행 박사 논문(2008), 224-231.

28) 김홍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 확산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63-64.

29) 김홍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 확산 연구』, 107-111.

30) 이런 점에서 한국의 극우들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사실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폭력으로 억압한 독재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이념적 내용을 담고 있기에 문자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과시즘 민주주의’라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명실상부한 파시즘 개신교가 굳건히 확립되었던 것이다. 특히 미국의 개신교 파시스트들의 정신적 성향 속에는 기독교의 사랑과 관용의 정신이 아니라 배타적 ‘마니교적 선악이원론’이 훨씬 강고하게 자리 잡게 되어, 세계는 빛과 어둠이라는 대등한 두 적대 세력(미국과 소련)의 전쟁터이며, 세계 역사는 악의 세력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꾸민 ‘음모’의 연속으로 이해했던 것이다.<sup>31)</sup> 매킨타이어(Carl McIntire)와 같은 근본주의 파시스트들은 해방 이전부터 한국전쟁 이후까지도 한국의 근본주의 개신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sup>32)</sup> 이들의 (공산주의자들은 사탄이니 죽여도 된다는) 광기는 중세에서 다른 견해를 가졌던 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가한 비인간적 만행을 신앙의 논리로 정당화시켰던 십자군적 광기와 다르지 않았다.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과 80년 광주민주화항쟁에서 볼 수 있듯, 반공주의는 집단학살과 편집증적 광기의 표출을 가능하게 한 메커니즘으로 작동된다.<sup>33)</sup> 반공주의로 인해 별다른 양심적 가책이나 도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서도 위로부터의 명령 한마디로 즉각적 집단학살을 저지를 수 있는 심리 상태가 만들어진 것이다.<sup>34)</sup>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로 한국 사회를 일제의 괴뢰국 만주국을 모델 삼아 병영화시켰다(만주국의 설계자 기시 노부스케(岸 信介)는 박정희의 통치 멘토이다). 이승만 독재에 절대적으로 부역한 개신교 파시스트 세력은 변함없이 박정희 정권과 정치적 밀월 관

31) Pheme Perkins, “Mani, Manichaeism”, *Encyclopedia of Early Christianity*, ed. Everett Ferguson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98), 362-363.

32) 이들은 철저한 근본주의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 근대 사상 특히 진화론과 사회주의 사상과의 투쟁을 신이 선택한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라 여겼던 파시스트들이었다. 류대영, “2천년대 한국 개신교 보수주의자들의 친미반공주의 이해,” 『경제와 사회』 62(2004), 63 참조.

33) 최장집, “냉전 해체기의 평화와 공존의 철학,” 『황해문화』 29(2000), 168.

34) 곽송연, “정치적 학살 이론의 관점에서 본 가해자의 학살 동기 분석: 5·18 광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3/1(2013), 38.

계를 유지했다. 특히 서북출신 개신교인들은 전쟁 구호물자를 통해 경제적 우위를 점령했고, 서북출신들이 전쟁을 거치면서 군 요직에 오르고 그들이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의 주역이었기에 군사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한국 개신교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군사독재를 적극 옹호하게 되었고, 박정희 군사독재체제를 반대하는 개신교 내의 민주화 운동세력을 오히려 불순한 용공세력으로 매도하게 된 것이다.<sup>35)</sup>

파시즘 개신교가 급성장(개신교회의 폭발적 부흥 성장)한 주요한 원인은 철저히 파시스트정권에 협력한 대가였다. 군사독재시절 반공주의 개신교의 정치에서 ‘조찬 기도회’는 권력유착의 주요 통로 중에 하나였다. 김준곤이 주도한 1965년 2월 ‘국회의원 조찬기도회’를 필두로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 국무총리를 위한 조찬기도회와 같은 기도회를 빙자한 정치행사로 개신교는 독재정권을 지지해 주었다.<sup>36)</sup> 개신교의 전폭적인

35) 유신 독재의 횡포가 극한을 치닫고 있을 때, 1973년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박형규, 권호경, 김동완 등과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학생들이 민주회복과 언론자유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는데 이에 대해 한국예수교협의회(KCCC)가 “기독교 반공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여 “일부 성직자들이 반정부적 선전과 데모를 선동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북괴’공산집단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공격했다. 또 이에 앞서 맥킨타이어가 기독교반공강연회를 통해 공산주의자들이 교회침투에 대해 경고하면서 WCC가 비성경적이고 용공적이라 비판했다(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3), 180). 김준곤은 CCC학생들을 동원하여 반공구국기독교생운동 특별기도회를, 한경직을 중심으로 18개 교단 소속 백만명의 신자들이 ‘나라를 위한 기독교연합 기도회’(여의도 516광장)에 운집하여 대규모 반공 군중집회를 조장했다(『교회연합신보』 1975년 5월 11일). 순복음교회도 ‘민족복음화와 국가안보’라는 집회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해 박정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전폭 지지선언을 했으며, 기조연설을 했던 김준곤은 노골적으로 유신체제를 찬양했다(김준곤,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갈림길에서,” 『크리스찬신문』 1975년 7월 26일). 그리고 급기야 1977년 11월 독재정권을 비판한 강희남 목사, 19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 간사 6명이 반정부적 내용의 발언과 교육이 문제가 되어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과 강희남 목사의 반공법위반 사건,”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111130>).

36) 김준곤 외, 『나와 김준곤 목사 그리고 C.C.C.』 (서울: 한국대학생선교회, 2005),

지지에 대해 독재정권은 교세 확장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화답해주었다.<sup>37)</sup>

급기야 1980년 광주시민들의 평화적인 민주적 열망을 무차별적인 테러와 대량학살로 짓밟은 전두환이 퇴역과 동시에 권력 서열 1순위임을 천명했던 바로 그 순간, 한국 개신교의 대표적 파시스트들은 자발적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위해 ‘나라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어 권력을 쟁취한 반인륜적 범죄자들을 축복해주었다. 그런데 이 기도회는 공영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으며 재방송으로까지 선전되었다. 전두환이 죽는 순간까지 그에게 충성을 다했던 김장환이 지금까지도 개신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현실에 비추어,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보여주었던 전투적이고 폭력적인 개신교가 광주 민중에 대한 학살을 자행한 인간성에 대한 범죄,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신앙적으로 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의 극우 파시즘적 개신교가 예수의 비폭력적 사랑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가 아니라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파시즘적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복음처럼 신봉하는 국가주의 종교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1987년 6·10 민주화운동이 타올랐을 시절에도 개신교 지도자들은 학살자 전두환이 주장한 ‘호헌’ 방침을 지지하는 등 병적인 파시스트적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이 무렵 한국교회협의회는 1988년 2월에 열린 제37회 총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정식으로 채택·발표함으로써, 개신교가 최초로 반공주의와 결별하는 공식적인 선언

---

579-580.

37) 1969년 전군신자화(全軍信者化)운동은 물론, 군사 정권의 전폭적이고도 파격적인 지원 속에서 치러진 1973년의 ‘빌리 그레이엄 한국전도대회’는 74년의 ‘엑스플로74’, 77 복음화대성회, ‘80세계복음화대성회’ 등의 초대형 군중집회를 통해 한국 개신교의 폭발적인 성장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김진환, 『한국교회부흥운동사』 (서울: 서울서적, 1993), 244 이하 참고.

을 한 셈이다. 하지만 발표 후 얼마 되지 않아 개신교 반공 파시스트 세력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을 출범시켰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악의 축’ 규정 이후, 한국 개신교의 반공주의는 탈냉전시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보다 강화된 반공·친미주의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아스팔트 광장에서 대규모 기도회를 갖고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친북좌파들의 준동”을 비판하고, “공산주의는 제1의 적”이며 “북한은 마귀의 집단”이라는 이원론적 반공·반북 신앙을 표명했다. 종교집회에서 “미국만세”를 외치며, 성조기를 흔드는 광기는 2025년 현재까지도 광장을 메우고 있다. 과거 천사 부시 자리에 현재 트럼프가, 박근혜 대신 윤석열이, 악마 문재인인의 자리에 이재명이 대체된 것 이외 달라진 것은 없다. 수많은 개신교 파시스트 조직들은 아스팔트 집회를 주도할 뿐 아니라 유튜브와 ‘미디어 선교’, ‘인터넷 사역’을 통해 가짜 뉴스(fake news)나 ‘역정보(disinformation)’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동 전선을 주도해 나가는 형국이다.<sup>38)</sup>

최근의 개신교 파시즘의 행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적 반공주의의 이념의 틀을 크게 수정하지 않은 채, 성차별, 종교차별, 인종차별 등과 같은 차별주의를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편협한 종교적 관점과 문자적 성서해석에 의해 형성된 도덕적 가치로써 사람들을 재단하고 그 가치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여기는 이들을 적으로 상정하고 모든 사회적 문제들을 그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 차별주의에 대한 종교적 정당성은 불안과 공포에 떠는 대중을 쉽게 통제하는 일종의 통치기제로 사용하거나 그 정당성을 통해 공포를 확산시키고 조장하기도 한

38) 김현준의 연구를 통해 논지는 개신교 파시즘 세력의 방대한 조직과 파시스트들의 활약상을 엿볼 수 있었다. 논자의 상상을 초월하는 조직의 방대함과 그 힘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현준, “한국 개신교 극우세력과 그 성격,” 『기독교사상』 756(2021), 15-25 참조.

다. 특히 개신교 파시즘은 반 이슬람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슬람=테러리즘이라는 공포를 조장하면서 이슬람 적대를 신앙적으로 정당화하며, 이를 위해선 역정보를 생산·확대재생산에 열을 올린다. 선한 전투를 위해서는 비열한 음모론도 얼마든지 용납되는 것이 파시스트들의 기본자세이다.<sup>39)</sup>

코비드19 이후 불기시작한 중국인 혐오도 마찬가지다. 12.3내란의 명분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음모론이었는데, 급기야 지난 총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설을 파시스트 음모론자들이 퍼뜨렸고,<sup>40)</sup> 이를 뒷받침하듯 내란 당일 한국의 선거를 조작했던 그 중국인 간첩들이 체포되어 팜으로 압송되었다는 뉴스를 한 극우 매체가 보도했다.<sup>41)</sup> 이러한 완벽한 역정보는 파시스트들이 내란수괴의 말을 신뢰하는 증거로 작용했고, 반중정서를 강화시키는 방아쇠가 되었다.

매킨타이어(Lee McIntyre)는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포함한 탈진실(post-truth) 시대의 정보 공작을 ‘역정보’라는 더 넓은 개념으로 범주화한다. 그에 따르면 역정보의 핵심은 단순히 가짜뉴스나 오보 같은 수순을 훨씬 넘어서서 악의적·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없애려고 거짓을

39) 과거 개신교 파시스트들이 “이슬람의 13 악마의 교리”를 SNS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유포시켰을 때, 논자의 신학대학원 동기들이 모인 단톡방과 밴드에 그것이 게시된 것을 보고, 즉각 쿠란과 대조해서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요 일방적인 왜곡이라는 글을 단톡방에 올린 적이 있다. 이후 논자가 쓴 글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급기야 논자가 근무하는 학교 총장에게 구두 경고를 받는 일까지 발생했다. 아직도 파시스트 세력들은 박00을 친이슬람 신학교수이자 기독교의 적으로 간주하는 파시스트의 글에 대해 절대적인 옹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슬람 혐오를 조장했던 자와의 논쟁은 박종균, 『열린사회와 세계사랑』 (서울: 지성과 감성, 2019), 319-362에 수록되어 있다.

40) 논자는 이 가짜뉴스를 2025년 1월 4일 한남동 관저 앞 탄핵반대시위 현장에서 직접 들었다.

41) 허겸,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스카이에일리」, 2025.1.16.

쏟아내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여 결국 진실을 부정하는 군대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있다.<sup>42)</sup> 이러한 형국이 지속되면 가짜뉴스나 역정보에 세뇌된 사람들은 진실의 여부는 무의미해지고 오히려 진실에 대해 불신하고 심지어 자신들과 인식을 함께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적개심을 품게 되는 것이다.<sup>43)</sup> 사례 깊지 않는 대중들은 진실이나 사실에 대한 객관적 수용보다는 자신의 감정이나 신념, 혹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가짜뉴스와 탈진실을 기꺼이 수용하고자 한다. 즉, 참된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과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바로 역정보의 유포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교란 행위이며, 혼란이 커질수록 역정보의 생산자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역정보의 온상 파시즘 개신교의 현실은 거의 절망적 수준이다.

또한 기독교 파시즘은 여전히 섹시즘, 즉 여성에 대한 편견, 고정 관념, 전통적인 인식이나 관행, 언어적 관습을 강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다. 교회에는 여전히 가부장제나 남성의 지배를 성서와 교리를 통해 정당화한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소위 “젠더리즘(genderism)”를 둘러싼 차별주의일 것이다. 기독교 파시즘은 젠더리즘에 기초해 그들을 판단하고 전통적인 성별 이분법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병리학적으로 다루든지, 범주의 밖의 성에 대해선 반 도덕적, 반 성서적, 반 기독교적이라 차별·정죄·적대한다.

끝으로 한국 개신교 파시즘의 이해 불가능 행태는 소위 “한국사회의 복음화의 최대의 적”이라 규정한 통일교<sup>44)</sup>나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들

42) Lee McIntyre, *On Disinformation*, 김재경 역, 『누가 진실을 전복하려 하는가』 (서울: 두리반, 2024), 23.

43) Lee McIntyre, *Post-Truth*, 김재경 역, 『포스트트루스가짜뉴스와 탈진실의 시대』 (서울: 두리반, 2019), 16, 19-20 참고.

44) 파시스트 사이비 종교집단이 유독 극우 정치권력을 지원한 행태들에 대한 기사는 이단

에 대한 태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방 이후 현재까지도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극우 파시즘을 지향하고 실제로 권력과의 부당한 거래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지만 그 점에 대해 정치적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오히려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신천지, 코로나 19 사태에서 보여준 검찰권력과 신천지의 유착, 신천지의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캠페인, 최근 문제가 된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윤석열’ 커넥션 등에 관련하여 극우 개신교의 침묵은 파시즘적 이념에서는 극우 정통개신교와 사이비 종교집단이 암묵적 동지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 V. 결론

아직 내란 종식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내란의 수괴만은 우여곡절 끝에 파면되고 그의 광신도들은 진정된 국면이다. 일반적으로 개신교 파시스트들을 우리 세계의 소수 극단적인 세력이라 애써 자위한다. 출생적·관습적 교회-인간인 논자, 개신교회의 에토스를 너무도 잘 아는 논자는 전광훈, 손현보 류의 극단적 아스팔트 파시스트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의 파시스트들, 독재 파시스트들을 신봉하고 그들의 노선을 추종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개신교 파시스트들을 열거할 수 있다. 과격성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파시즘의 망령은 한국 개신교회를 항상 배회하고 있다.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거나 종교적 의무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다른 이들에 대한 그들의 행동이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이웃들 사이에서 고통을 야기

---

연구지 「현대종교」를 참고할 만 하다. 탁지일, “통일교 정치권 로비, 역사와 본질,” 「현대종교」, 2025. 5. 24; 김현빈, “통일교의 민낯, 황령·탈세·정치 커넥션,” 「현대종교」 2025. 6. 5.

한다면 ... 그런 종교는 타락했다고 확신해도 된다.”<sup>45)</sup> 파시즘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 개신교는 사실상 타락한 종교요, 파시즘 종교의 병리적 증상을 말기 암으로 앓고 있는 종교라 보인다. 지금이라도 처절하게 반성하고 파시즘의 뿌리를 근절할 힘이 남아 있을까. 일상적인 개신교 교회의 삶을 들여다보라. 일상화된 파시즘, 체질화 된 반지성주의 가운데서 파시스트로 사는 것이 훌륭한 신앙, 좋은 삶의 가능한 방식으로 살고 있기에 그러한 삶과 단절해야한다는 결단조차 생겨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수의 삶을 모방하는 교회가 아니라 반지성주의와 근본주의적 교의, 파시즘으로 왜곡된 교회의 세계에서 자라지고 그러한 삶을 자명한 것으로 살아온 교인들이 구조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능력이 물질주의, 반영주의, 샤마니즘에 사로잡힌 한국개신 교회에 있을까 지극히 회의적이다. 교회에서의 민주시민사회를 위한 공공신학의 교육, 파시즘의 온상 근본주의 신학을 극복하는 열린 신학교육. 어느 것 하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개신교 파시즘의 문제의식조차 없는데서 그것과의 단절을 논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나 극히 희미하다고 해서 완전히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논자가 기대어 보는 유일한 희망은 교회 내적으로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성숙된 종교성을 생각해본다. 우선 기독교윤리학자의 유기적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이다. 그람시가 직업상 정신 활동에 참여하여 기존의 사회 체제의 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지식을 활용하는 전통적 지식인 집단을 비판하면서 대안적으로 제시했던 ‘유기적 지식인(organic intellectuals)’을 생각한다. 그들은 기존의 지배체제를 비

45) Charles Kimball, *When Religion becomes Evil: Five Warning Signs* (San Francisco: HarperOne, 2024), 47. 박성철,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 175에서 재인용.

판하는 지식인들이다. 논자는 유기적 지식인으로서의 기독교윤리학자를 생각해본다. 전통적 지식인은 사회의 주도적 지배 의식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며 그로부터 사회 체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지식인이다.<sup>46)</sup> 반면 유기적 지식인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상식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회 집단의 행동 혹은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세계 개념을 창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지식인이다.<sup>47)</sup> 지배계급에 저항하기 위해 피지배계급은 비판적 자의식을 가져야 하고 대중들이 스스로 비판적 지식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을 조직하고 계도하기 위해선 유기적 지식인의 집단적 노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파시즘 개신교의 대중들이 몸에 밴 익숙한 신앙 양식이 가장 반기독교적이었다는 각성,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 인식적으로뿐 아니라 느낌적으로 경악하게 할 수 있는 주체(교회의 등애이면서 전기가오리)는 일단 교회내의 유기적 지식인일 수밖에 없다. 왜 윤리학자인가. 논자의 경험상 뉴라이트라 불리는 파시즘을 숭상하는 파시스트 지식인, 야당 지도자의 암살 계획이 성공하기를 빈다고 기도하는 파시스트, 파시스트 윤석열을 예수 그리스도에 준하는 인물로 찬양한 파시스트의 사례를 기독교윤리학자들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 최근 모 신학대에서 편협한 교의로 교수를 해임시킨 사태에 가장 적극적으로 연대한 기독교윤리학자들에게서 유기적 지식인이 오버랩된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기독교윤리학자들에게서 사이버 비판적 진보적 지식인들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윤석열의 검찰독재를 민주적이라 대중들을 속였던 그 비판적 지식인들이 실은 전통적 파시스트 지식인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방증해주었지만, 끄찍하게도 그들의 대중선동의 힘은 가히

46) Antonio Gramsci,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 ed. Q. Horae & G. Smith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71), 3.

47) *Ibid.*, 10.

여론을 압도했었다.<sup>48)</sup> 유기적 지식인으로서의 기독교윤리학자를 성찰한다는 것은 파시즘 개신교와의 단절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교회 제도를 위해 봉사하는 전통적 지식인이 아니라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지식인임을 자각하고 교회의 파시즘에 저항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단순히 교회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깨어 있는 시민으로 각성시키는 유기적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결기가 충만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종교성을 생각한다. 민주공화국의 시민사회의 발전과 건전한 토대 형성이 파시즘에 체화된 한국 사회와 한국 개신교의 치유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적 시민사회는 가치 다원주의가 작동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민들 저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치의 다양성 내에는 다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관용하지 않는 가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가치의 다양성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의 가치만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강요하는 경우가 문제이다. 바로 롤즈(John Rawls)는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가치다원주의 조건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한다. 그것이 “정치적인 것”

48)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_민주주의의 어떻게 끝장이 나는가』(서울: 천년의사상, 2020)의 저자들, 강양구, 권경애, 김경율, 서민, 진중권과 같은 자칭 비판적 지식인들은 이전 정권을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좌파 파시즘 정권”이라 맹비난했던 대표적인 지식인들이다. 이들 중에는 아예 극우 파시스트 정당에 들어가서 정당 활동을 한 자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극우적 방송매체를 통해 이전 정권과 현재 야당에 대해서만 독설을 쏟았지 윤석열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당이 자행한 불법적이고 부정한 통치 행태에 대해선 침묵했다. 특히 12.3내란, 국가체제 전복 미수사건에 대한 그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 검찰정권과 내란을 지지하는 정당이 지금까지 보여 왔던 심각한 수준의 역사왜곡, 국회와 헌법 기관에 대한 공격, 내란 옹호의 극우 파시스트 행태에 묵인하는 태도는 그람시의 “전통적 지식인”의 축에도 들지 못할 수준의 사이비 진보지식인, 솔직히 스스로 극우 파시스트지식인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이들 주변에서 마치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양심적 지식인인양 추켜세우고 이들의 논리를 학문적으로 인용하고 전파해주는 비루한 상아탑 지식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을 형성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것이란 사회가 협력체계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민주적인 사회는 여러 가지 신념들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사회가 협력체계라면 이러한 신념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근거를 최소한으로만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공존의 첫 번째 조건이 개인들이 종교적, 도덕적, 철학적 이유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념을 정치적 장에서 함부로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그 어떤 종교적 신념이든 정치적 장에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 교의(comprehensive doctrine)<sup>49)</sup>나 신념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이 정치적 장에서 해야 할 일은 사회적 협력을 위해 누구에게도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협력의 조건을 정치적 장에서 합의하고, 그것에 근거해 사회의 헌법과 법률을 정하고 지키는 일이 “정치적인 것”이다. 이때의 합의는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 즉 모든 포괄적 신념들이 공적 이성의 작동 하에 공통적으로 지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레 모든 신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최소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sup>50)</sup> 정치적인 것에 부합되는 시민 정신은 익명의 기독교 정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혐오와 배타를 바탕으로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근본주의 파시즘적 종교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시민사회에서 배척되어야 하는 유일한 종교가 아닐 수 없다. 논자는 루소의 시민사회 종교가 주는 불관용의 교리를 곱씹으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종교의 소극적 교리는 오직 종교적 불관용(intolérance)에 대한 배척(불관용)만이다. 만일 어떤 종교가 시민의 의무와 완전히 상반되는 교리로 무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다른 종교에

49) “포괄적 교의”라 함은 그 이론이 인생 전반에 걸친 가치들, 사적 관계에 관한 이상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로, 인간론, 가치론, 세계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기독교 교리, 맑스주의 등이 있다.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11-15.

50) Rawls, *Political Liberalism*, 143.

대해 배타하지 않는 종교라면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종교만이 유일한 종교라고 독선적이라 주장하며 다른 종교를 배타하는 종교는 추방시켜 버려야 하는 것이 시민종교의 불관용 교리이다.<sup>51)</sup>

---

51) Jean-Jacques Rousseau, *The Social Contract and Other Later Political Writings*, trans. Victor Gourevit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199.

## 참고문헌

- Gramsci, Antonio.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 ed. Q. Horae & G. Smith.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71.
- Hofstadter, Richard. *Anti-intellectualism in American Life*. 유강은 역. 『미국의 반지성주의』. 서울: 교유서가, 2017.
- \_\_\_\_\_. *The paranoid style in American politics and other essays*. New York: Alfred A Knopf, 1965.
- Kimball, Charles. *When Religion becomes Evil: Five Warning Signs*. San Francisco: HarperOne, 2024.
- Kreuz Verlag, 1987.
- Levitsky, Steven and Daniel Ziblatt. *How Democracies Die*. 박세연 역.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서울: 어크로스, 2018.
- Luther, Martin. "Heidelberg Disputation." *Martin Luther's Basic Theological Writings*, trans. and ed. Timothy F. Lull.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ress, 1989.
- \_\_\_\_\_. *Luther's Works*, vol. 40 (Church and Ministry II). ed. Conrad Bergendoff et al trans. Helmut Lehmann. Minneapolis: Fortress, 1958.
- McIntyre, Lee. *On Disinformation*, 김재경 역, 『누가 진실을 전복하려 하는가』 서울: 두리반, 2024.
- \_\_\_\_\_. *Post-Truth*. 김재경 역. 『포스트트루스-가짜뉴스와 탈진실의 시대』. 서울: 두리반, 2019.
- Mitchell, Richard. *Thought Control in Prewar Japan*. 김윤식 역. 『日帝의 思想統制』. 서울: 一志社, 1982.
- Paxton, Robert. *The Anatomy of Fascism*. 손명희/최희영 역. 『파시즘: 열정과 광기의 정치 혁명』. 서울: 교양인, 2005.
- Perkins, PHEME. "Mani, Manichaeism". *Encyclopedia of Early Christianity*, ed. Everett Ferguson.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98.
- Rawls, John.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 Roper, Lyndal. *Martin Luther: Renegade and Prophet*. 박규태 역. 『마르틴 루터-인간, 예언자, 변절자』. 서울: 복있는 사람, 2019.
- Rousseau, Jean-Jacques. *The Social Contract and Other Later Political Writings*. trans. Victor Gourevit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Scribner, Bob & Gerhard Benecke(ed.). *The German Peasant War of 1525: New Viewpoints*. Boston: Unwin Hyman, 1979.
- Sölle, Dorothee. "Christofaschismus." in *Das Fenster der Verwundbarkeit*. Stuttgart: Kreuz Verlag, 1987.
- Yoder, John, *The Politics of Jesus*. Grand Rapids: Eerdmans, 1994.
- \_\_\_\_\_. *The Royal Priesthood: Essays Ecclesiological and Ecumenical*. Scottsdale: Herald Press, 1998.
- Zweig, Stefan. *Triumph und Tragik des Erasmus von Rotterdam*. Frankfurt: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81.
- 강양구 외.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_민주주의 어떻게 끝장이 나는가』. 서울: 천년의사상, 2020.
- 강인철. "해방 이후 4·19가치의 한국교회와 과거 청산 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24(2006): 67-98.
- 곽송연. "정치적 학살 이론의 관점에서 본 가해자의 학살 동기 분석: 5·18 광주 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3-1(2013): 13-48.
- 김준곤.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갈림길에서." 『크리스찬신문』. 1975년 7월 26일자.
- 김준곤 외. 『나와 김준곤 목사 그리고 C.C.C.』. 서울: 한국대학생선교회, 2005.
- 김진호 외. 『우리 안의 파시즘』. 서울: 삼인, 2006.
- 김진환. 『한국교회부흥운동사』. 서울: 서울서적, 1993.
- 김현빈. "통일교의 민낯, 횡령·탈세·정치 커넥션." 『현대종교』 2025. 6. 5.
- 김현준. "한국 개신교 극우세력과 그 성격." 『기독교사상』 756(2021): 15-25.
- 김홍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 확산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 노영기.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 대학원 미간행 박사논문 (2008).
- 류대영. "2천년대 한국 개신교 보수주의자들의 친미반공주의 이해." 『경제와사회』 62(2004): 54-79.

- 박성철.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 박종균. “루터와 뮌처의 종말론 비교연구-정치사상의 관점에서.” 『신학연구』 73 (2018): 341-368.
- 박종균. “루터 종교개혁과 근본주의의 ‘선택적 친화성’에 관한 연구.” 『신학과 선교』 56(2019): 143-180.
- 박종균. 『열린사회와 세계사랑』. 서울: 지성과 감성, 2019.
- 장병혜. 『상록의 자유혼』. 서울: 현대인쇄문화사, 1973.
- 정병준. 『한국교회 역사 속 에큐메니컬 운동』. 서울: 오이쿠메네, 2024.
- 최장집. “냉전 해체기의 평화와 공존의 철학.” 『황해문화』 29(2000): 163-179.
- 탁지일. “통일교 정치권 로비, 역사와 본질.” 『현대종교』 2025. 5. 24.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3.
- 허겸.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스카이테일리』. 2025.1.16.
-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과 강희남 목사의 반공범위반 사건.”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111130>.

논문투고일: 2025년 07월 03일

심사개시일: 2025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5년 08월 04일

---

• 국 문 초 록 •

---

본 연구는 이번 “12.3 내란 사태”에서 보여준 광신적 개신교 파시즘이 결코 우발적 사태가 아니라 탄탄한 역사적 기원과 근거를 바탕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파시스트 운동이 공유하는 정치적 특성과 기독교 근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신성화의 결합한 것이 기독교 파시즘이다. 기독교 근본주의를 중요한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의 파시즘은 기독교 근본주의가 신정일치 국가에서나 실현 가능한 규범들을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신념 체계를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규율을 공적 영역에서도 실현해야 한다는 망상에 가까운 비합리적이고 반지성주의적 태도를 고수한다.

이 연구는 현재 목도하는 한국 극우 파시즘 개신교의 뿌리를 가까이 있는 개신교를 비호해주었던 독재 파시스트 정권들과의 친화성을 보인 근본적 성향에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개신교의 모태인 미국 복음주의와 근본주의의 반지성주의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개신교를 탄생시킨 종교개혁운동에서, 아니 더욱 원천적으로는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기독교가 된 그 시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종교적 파시즘의 계보를 살펴보고 있다.

**주제어:** 기독교 파시즘, 기독교 근본주의, 복음주의, 반지성주의, 민주주의, 가짜 뉴스, 역정보

---